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견

의안 번호	4
----------	---

제출일자 : 1992.11.24

제출자 : 남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199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것임.

2. 주요골자

○. 예비비 예산액 : 1,022,429,000 원

○. 예비비 지출액 : 608,136,000 원

-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위탁금 (₩126,058,000 원) 등 15 건

3. 참고사항

○.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예비비결산편 참조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견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년 11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1992년 11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황석조)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199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0. 예비비에산액 : 1,022,429,000원

0. 예비비지출액 : 608,136,000원

-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위탁금 (₩126,058,000원) 등 15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무상)

- 0.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지출해야하는 지출

의 특례에 해당하는 과목언데도

0. 결산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총 15건에 대해 608,136천원을 지출함에 있어,
0. 지역교통과 신설로 인한 사무실 전세 보증금과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침수 지역 방역비등 일부는 예측 불가능과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불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0.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공무원 공상치료비등 일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은 관련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법을 잘못 남용한 부당한 지출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 변 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배종환 위 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0.민락대립지 철거후 사후관리 경비조로 지출한 3,256만 2,000원이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0.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조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것으로써 91년 8월13일 민락동 대립지 사유지내 무허가 포장 횡집, 유기장등을 일제히 정비,철거 하고 철거된 무허가 횡집등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집단 노상화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어 91년8월13일

질의자	답변자	질의내용	답변내용
"	"	<p>0.91년8월13일 철거후 당시 2차,3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도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만한 이유는</p> <p>0.매립지가 허허벌판이고 사유지인데 우리 예산으로 많은 인건비를 투입하여 경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경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실제로 들어</p>	<p>부터 91년11월30일까지 141일간 사역인원은 연 3,440명이고 인부임은 1인당 1일21,000원으로 총계 6,91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p> <p>0.그 당시 8월13일 철거후 부득이 경비원을 투입해야 할 긴박한 사유가 있었고 추경이 9월달에 확정 되었기 때문 그 앞의 인건 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또한 그 당시는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 이었음.</p> <p>0.당시는 매립지에 무허가 횃집 난립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문란케하고 도시미관 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문제점 이 있어 일제 철거후 예방을 위해 경비를 했음.</p>

질의자	답 변 자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	서 지난달에만도 철거를 했는데 경비하는데 헛돈이 지출된 것이 아닌지	경비원을 고용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밤낮으로 경비할 수 없었기 때문. 또한 경비할 때는 무허가가 있었고 경비가 끝난 9월부터 다시 무허가가 들어서 직원을 동원 철거하게 되었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요지 : 없음

8. 기탁필요한사항 : 없음